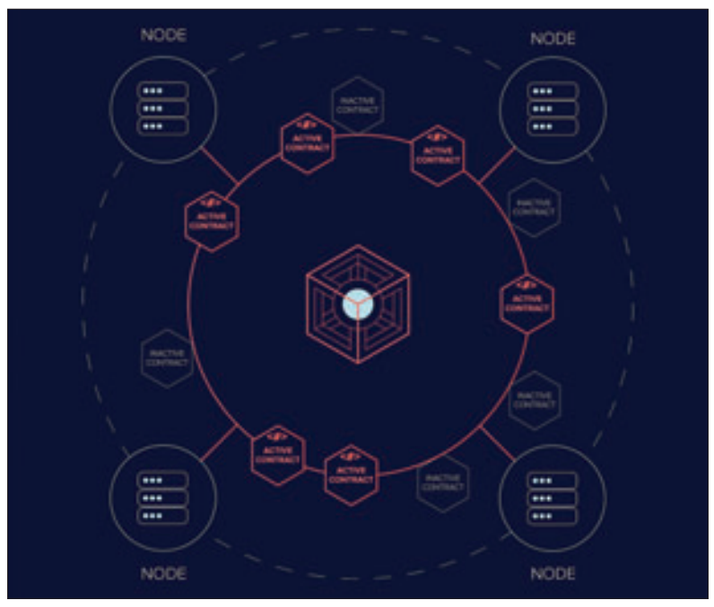
가상화폐 시장 '젠 프로토콜' 뜬다

비트코인 매거진, 11월 15일 보도

거래시 확보시간 자동계산
일반인 참여 가능성 높여
참여형 채굴 등 장점 돋보여



나스닥 닷컴에 소개된 '젠 프로토콜' 개념도.

최근 금융에 일대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에 새로운 금융시스템이 등장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젠 프로토콜'이다.

가상화폐 잡지 '비트코인 매거진'은 11월 15일 '젠 프로토콜, 금융서비스를 위한 진보한 접근법'(Zen Protocol Advances Smart Contracts for Financial Services)이란 글을 나스닥 닷컴(www.nasdaq.com)에 게재했다.

비트코인 매거진은 글 도입부에 미국 선승인 스즈키 순류 스님의 격언을 들었다. 비트코인 매거진 측은 "미국에서 대중에게 선불교를 알리고 있는 순류 스즈키 스님은 '미국에서 불교전법은 초심자들의 경우 가능성이 많지만 전문적인 경지까지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며 "많은 면에서 이 격언은 오늘날 대두되는 가상화폐 금융 기술의 세계적인 부상을 콕 찝어 얘기하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비트코인 매거진에 따르면 오늘날 가상화폐 금융시스템은 중앙집중적이며 복잡하여, 많은이들이 참여하기에는 접근장벽이 있는 상태다.

비트코인 매거진은 "새로운 금융시장에서 기존 기업과 개인은 서류업무와 관료체제를 관리할 수 있는 반면, 많은 대중들은 이 시장의 장벽을 극복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며 "결과적으로, 금융참가자들은 제한된 접근을 위해 중개자들에게 의존한다. 중개자들이 없이는 참여자들은 자산을 발행할 수 없고 일부 자산 등급에서는 거래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매거진은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는 '젠 프로토콜'을 소개했다. 텔아비브에 본사를 둔 '젠 프로토콜'은 가상화폐 시장에서 안전한 P2P금융을 확보해 은행 및 브로커와 같은 중개인의 필요성을 낮추고 있다.

비트코인 매거진은 "젠 프로토콜의 방식을 통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건 금융상품을 만들고 거래 할 수 있다. 옵션 선물, 디지털 통화 등 무수히 많은 금융상품이 참여할 능력이 없는 소비자들에게 공개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젠 프로토콜은 여러 측면에서 비트코인의 경쟁업체인 이더리움의 대안으로 보인다. 젠 프로토콜은 비트코인과 동일하게 작동하며 이더리움이 가진 몇가지 부정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다. 이더리움의 경우 채굴된 화폐가 부족할 시 거래가 중단되며, 그 동안에 사용된 화폐가 모두 반환되는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다.

하지만 젠 프로토콜은 리소스 측정을 통해 계약 완료까지의 시간을 감안해 채굴 등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거래를 가능하게 해준다. 여기에 젠 프로토콜은 멀티 해싱 채굴 시스템을 구현해 보다 많은 이들의 협력을 유도한다.

젠 프로토콜 개발팀은 2014년부터 가상화폐 계에서 종사했다. 수년간 연구후 2016년 6월부터 프로토콜 개발이 시작됐다. 젠 프로토콜은 장기적으로 스위스 은행과 연계해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 자산에 접근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젠 프로토콜 CEO인 아담 펠로우는 "젠 프로토콜은 'Zen'이 가진 정신에 근간한다.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금융자산을 활용하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우리는 사람들 간에 믿음과 책임감을 갖고 가상화폐 시장이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비폭력' 위해 불교-기독교 힘 모아야"

종교간대화위원회, 6번째 불교-기독교 종교간 대화 열어

'비폭력'을 주제로 한 불교-기독교간 종교간 대화가 대만에서 열렸다.

'바티칸라디오'는 11월 14일(현지시간) "11월 6일부터 4일 동안 '비폭력을 위해 함께 갑시다'를 주제로 불교-기독교 종교간 대화가 대만에서 열렸다"고 보도했다.

이번 행사는 로마 교황청 종교간 대화위원회(the Pontifical Council for Interreligious Dialogue)의 주관으로 열렸으며, 18명의 참가자들은 대부분 아시아를 대표하는 인물로 구성됐다.

행사에서는 종교간 대화 위원회 차관급 사무총장인 미겔 앙헬 아유소 기소 주교가 개회사를 맡았다. 미겔 주교는 "1964년PCID가 설립된 이래로 전세계 불교 신자들과의 대화와 협력에 참여해 왔다"며 이번 총회의 주제는 베삭 축제를 앞두고 있는 불자들을 위해 전통적으로 평화와 비폭력의 문화를 증진시킬 필요성을 강조한 내용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종교간 대화 위원회는 지금까지 총 6회에 걸친 종교간 대화를 열었다. 첫 번째 종교간 대화는 앞서 말한 대만 불광산에서 1964년 열렸으며, 두 번째는 1995년 "말과 침묵"을 주제로 1998년 인도 방갈로 사원에서, 세 번째는 2002년 일본 도쿄에서 '불교의 승가와 기독교의 교회'를 주제로, 네 번째는 2013년 이태리 로마에서 '공동체에서의 평화'를 주제로, 다섯 번째는 2015년 인도 보드가야에서 '불자와 기독교인들의 우애 증진을 위해'를 주제로 열렸다.

미겔 주교는 "전 세계 곳곳에서 테러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사망자들 대부분이 여성과 아이들"이라며 "특히 대부분 많은 분쟁들이 가난한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여성들의 가정 폭력에 대해 언급하며 "폭력에 대한 연구는 단순한 학문적 활동이 아닌 삶과 죽음의 문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장기 또는 단기의 전쟁의 영향을 겪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비이성적인 잔학 행위의 목격자 들이다. 우리는 매일 폭력으로 인한 희생자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바티칸라디오'는 11월 14일(현지시간) "11월 6일부터 4일 동안 '비폭력을 위해 함께 갑시다'를 주제로 불교-기독교 종교간 대화가 대만에서 열렸다"고 보도했다.
사진출처=바티칸라디오

전 세계 13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폭력으로 인해 매년 사망하고, 전 세계 인구의 약 12억 정도가 폭력으로 인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그는 "민족주의, 성·인종 차별 주의, 종교 근본주의는 우리의 마음을 무감각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 그들의 폭력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호주 수도에 불교사원 '첫 삽'

호주 불자인구 증가 반영 지표…티베트 불교 사찰 '평화 사원'

폭력 근절·마약 중독 막기 위해
명상수업·문화 행사 등 진행
2019년 완공·일반에 개방 예정

호주의 수도, 캔버라에 최초의 사찰이 건설된다. 이 사찰에서는 문화 행사를 비롯, 여러 사회적 활동도 진행 될 예정이어서 더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호주 언론 '캔버라 타임스'는 11월 8일 티베트불교협회 주최로 캔버라에 최초 불교 사원인 '평화 사원(The Stupa Temple of Peace)' 건설에 첫 삽을 떴다고 전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앤드류 바(Andrew Barr) 호주정부수석장관, 캔버라 티베트불교협회장 라마 최닥 린포체(Lama Choedak Rinpoche) 등이 참석했다. 이는 90년대에 비해 불자가 3배 이상 늘어난 지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찰은 2019년 초까지 완공될 예정이며 290만 달러가 예산으로 잡혀있는 상태다. 린포체는 "호주에도 이제는 불자가 많다. 과거와 다르다. 이런 사회적 흐름 속 호주 수도인 캔버라에 사찰은 꼭 필요하다"며 "이 사찰로 평화를 증진시키고 폭력을 근절하며 마약중독을 막고자 한다. 매우 사회적인 활동도 많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앤드류 장관은 "이 사찰이 캔버라서 여러 사회적 역할을 담당할 뿐 아니라 도시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캔버라에서 보는 티베트사찰의 모습 또한 멋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캔버라 최초 사찰 '평화사원' 기공식서 첫 삽을 뜨는 호주 정부수석장관 앤드류 바.
사진출처=캔버라 타임스

한편 사찰은 2층으로 지어질 예정이며 100명의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명상홀을 포함해 여러 공공 공간을 포함할 예정이다.

박진형 기자

치앙 마이의 잠 들지 않는 밤

태국 대표적 축제 '로이 끄라통'과 풍등 축제

11월, 태국 치앙 마이의 밤은 다양한 불빛으로 반짝인다. 경쾌한 음악소리도 울려 퍼진다. 이곳에서는 11월 내내 풍등 축제가 진행된다.

'릴리전뉴스'는 11월 13일 태국 대표 축제인 '로이 끄라통(Loi Krathong)' 축제와 함께 치앙 마이서 진행되는 풍등 축제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그 의미를 조명했다. '릴리전뉴스'는 축제가 "매년 태국, 미얀마, 라오스 등 많은 지역서 보름달을 환영하며 이뤄진다"며 "그 중 치앙 마이는 다양한 불빛과 연등이 매우 아름답다"고 설명했다.

로이 끄라통 축제는 타이력 열두 번째 달 보름에 열리는 민속 축제다. 이 기간에는 전국의 물길이 연꽃 모양으로 만든 배 '끄라통'으로 가득 찬다. 끄라통에는 불을 밝힌 초와 꽃, 동전 등을 싣는다. 태국 사람들은 작은 배를 띄워 보내면서 축복을 빌고 액운을 흘려보낸다. 거리서 행사를 마친 뒤에도 사람들은 집에 불상을 세워두고 각자의 예불을 진행한다. 이러한 의식들은 불교적 사상서 기반했다고 '릴리전 뉴스'는 밝혔다.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치앙 마이 주민들이 풍등에 소원을 담아 날리고 있다. 사진출처=릴리전 뉴스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치매
죽을 때까지 걸리지 않는 방법

• 불면증에서 벗어나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철 골조로
사찰 신축 전문
지붕개량 전문

장점

• 목조보다 50% 비용 절감
• 비틀림이 없음
• 지진에 강함
• 공사기간 단축



대수건설 010-3911-1775. 011-9726-9288

